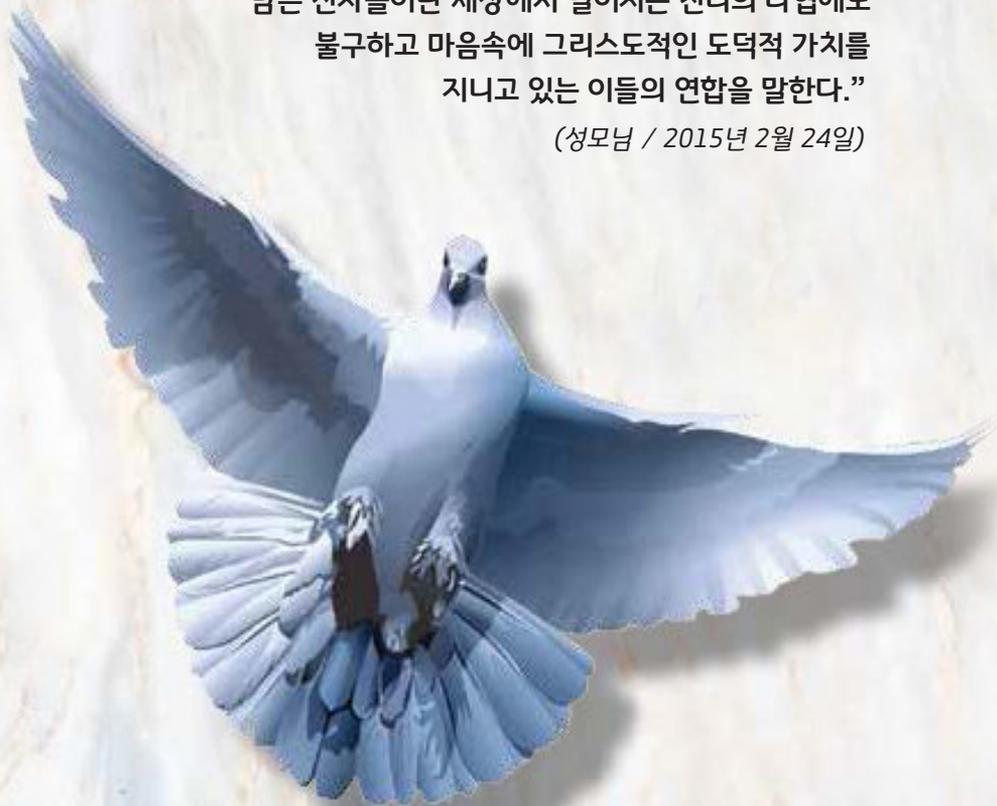


# 남은 신자들과 진리의 7가지 도덕 규범

“남은 신자들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진리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들의 연합을 말한다.”

(성모님 / 2015년 2월 24일)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신 메시지

[www.holylovekorean.com](http://www.holylovekorean.com)

## 남은 신자들(Remnant Faithful)이 새겨야 할 진리의 7가지 도덕 규범

1. “모든 영혼은 최후 심판을 겪는다.”
2. “천국과 지옥은 실재한다.”
3.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모든 진리를 파괴하기를 원한다.”
4. “너희는 반드시 선과 악에 관한 진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5. “거룩한 사랑은 선을 정의하며 너희의 구원으로 이끈다.”
6. “모든 죄 곧, 모든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은 사리사욕으로 인한 것이다.”
7. “절대 인간과 그들의 의견을 하느님보다 더 존중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2015년 2월 24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남은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둔다. 남은 신자들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진리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들의 연합을 말한다. 사랑하는 남은 신자들아, 너희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일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탄이 거짓 안에서 악을 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로 일치하라는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서로 맞서지 마라. 원수를 알아보고 그 원수에게 맞서라.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다.”\*\*

“종교 및 세계 지도자들 모두에게 말하지만, 사회 정의를 너희의 목표로 삼지 마라. 사회 정의를 목표로 삼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정의를 불러들이는 죄들을 묵인하게 되고, 사회 도덕을 강화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악을 연합시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

“가톨릭 신자들은 반드시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일치해야 하며 불법적인 변화를 지지하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라. 인간이 아니라 진리에 책임을 져라.”

“내 아드님께서는 모든 이를 진리 안에서 일치시키기 위해 남은 신자들을 위한 이 메시지들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찾으려 하지 마라. 거짓에 용감히 맞서 싸워라. 항상 선으로 가장하는 원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이자 어머니라는 점을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2:13):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16:17-18):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 4 남은 신자들과 7가지 도덕 규범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1:18, 32), (로마 2:6-8):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느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 2015년 3월 1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만약 모든 이가 전통과 십계명, 거룩한 사랑을 지킨다면 남은 신자들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너무나 많은 이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법들의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이 지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진리의 타협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사탄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가 믿음을 약화시킨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이기적인 욕망을 이용한다. 그러면 영혼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의 믿음의 근본과 도덕 규범이 타협된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 자유의지에 맞추기 위해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의지가 진리에 순응해야만 한다.”

“영혼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만 하며 항상 선과 악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현 순간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어야만 한다.”

#### 2015년 3월 1일

요셉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모든 아버지들은 남은 신자들을 위한 진리의 도덕 규범에 따라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가정을 인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 진리의 도덕 규범 안에서 육성된 젊은 세대도 남은 신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보장하고 진리를 영속시킨다.”

**2015년 3월 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남은 신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희망이자 토대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 왔다. 내가 재림할 때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아버지의 십계명과 거룩한 사랑의 진리의 도덕 규범에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옹호되고 진리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 [십계명과 진리의 도덕 규범]에 따라 살아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것은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거룩한 남은 신자들을 지리적 경계로 구분지을 수 없음을 깨달아라.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남은 신자들의 특징인 남은 신자들 간의 일치란 서로에게 맞서지 않음을 뜻한다. 선은 선에 맞서지 않는다. 오직 악만이 선에 맞설 뿐이다.”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것은 사탄이 너희 앞에 설치하는 함정이다.”

## 남은 신자들 간의 일치

**2015년 2월 23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부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하여라. 남은 신자들이 의로움 안에서 한데 모일 때 서로에게서 흠을 찾지 말고 우리의 하나된 성심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너희에게 남은 신자들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은총과 계속해서 남은 신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2015년 2월 25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너는 남은 신자들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를 내게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

## 6 남은 신자들과 7가지 도덕 규범

려면 다시금 선과 악의 분별(이란 주제로) 돌아가야 한다. 요즘 시대에는 착한 사람들이 또다른 착한 사람들에게 맞선다. 이 선교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선교사업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이들의 의견을 신뢰하며 자기 스스로 진리를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다.”

“남은 신자들의 희망은 선과 악의 분별이다. 그래서 ‘분별의 인장’을 이곳[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주고 있는 것이다.”

### 2015년 3월 2일

저(모린)는 예수님께 왜 지금 이 시점에 남은 신자들을 모으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요즘 시대에는 신앙과 계명,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도덕에 관한 많은 것들이 불분명하다. 만약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영혼들은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고 스스로 결정한다. 양심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 모호함은 대부분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거짓을 변호하며, 자신의 양떼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느님이나 그분의 계명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양심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고 믿는 무리도 있다.”

“그러니 하느님의 진리를 옹호하는 거룩한 사랑이 공격을 받는 것이 어디 놀랄 일이겠느냐?”

####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13:9):

갓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은총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간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 남은 신자들이 따라야 할 지도자는?

2015년 2월 23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남은 신자들은 누구를 믿고 신뢰할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진리를 지지하며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마음속에 숨겨둔 어떤 의도도 없으며, 간교한 속임수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충고에 가장 많이 반대하는 자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원하는 지도자들이다.”

“너희가 따라가고 있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 길이 십계명 즉, 거룩한 사랑을 지지하는지 검토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 너무나 많은 의로움이 침묵에 싸여 결코 선포되지 않고 있다.”

“나는 너희가 반항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진리 곧,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하기를 바라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5):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 2015년 2월 2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훌륭한 지도자는 그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에 반대하는지로 알아볼 수 있다. 너희는 남은 신자들을 위한 진리의 규범에 반대하는 자를 따르거나 그에게 복종해서는 안된다. 이런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끈다. 나는 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반항심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일치시키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낙태나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지도자를 지지한다면, 너희는 악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악은 오로지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만 바뀔 수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악들에 맞서고 그것들을 지지하는 이들에 반대해야만 한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종교 지도자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양떼의 영적 복지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다. 그는 또한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나는 절대 너희에게 악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오직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신심을 장려하는 이들만 신뢰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정직함이 뒤따를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 + 성경 구절 독서 (1베드 5:2-4):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 진리의 일곱 가지 도덕 규범

2015년 2월 13일 / 진리의 일곱 가지 도덕 규범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남은 신자들 즉, 여전히 전통에 따라 믿는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옹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진리들이 있다.”

1. “모든 영혼은 최후 심판을 겪는다.”
2. “천국과 지옥은 실재한다.”
3.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모든 진리를 파괴하기를 원한다.”
4. “너희는 반드시 선과 악에 관한 진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5. “거룩한 사랑은 선을 정의하며 너희의 구원으로 이끈다.”
6. “모든 죄 곧, 모든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은 사리사욕으로 인한 것이다.”
7. “절대 인간과 그들의 의견을 하느님보다 더 존중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이 요점들 하나하나 남은 신자들이 가져야 할 바위처럼 단단한 기초다. 이 요점들을 삶으로 실천하여라.”

2015년 2월 14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거룩한 남은 신자들의 도덕 규범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일곱 가지 요점들은 절대 타협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며칠 동안 나는 이 요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전반적인 넓이와 깊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 요점들을 검토하면서, 사탄은 바로 이런 식으로 너희를 공격하며 너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점을 깨달아라. 사악한 자는 너희가 이 진리들을 너희 것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자는 남은 신자들이 일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권리와 너희의 조상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온 신앙의 전통 안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일치해야만 한다. 너희는 조롱과 비방을 받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인쇄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거룩한 남은 신자들은 오늘날의 세상에 여전히 더없이 존재하는 내 티 없는 성심의 깊숙한 곳에 있다. 내 티 없는 성심은 사악한 시대에 맞서는 표징이다.”

\* 조상들이란 신앙의 전통을 확립하고 그것을 후세에 전했던 교부들과 사도 계승자들(교황들과 주교들)을 말합니다.

## 2015년 2월 15일

성모님께서 흰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망토 안쪽은 녹색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왕크를 하십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녹색은 희망을 상징한다. 남은 신자들은 문명의 미래의 희망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남은 신자들에 대해 한 번 더 논하기 위해 약속한 대로 이곳에 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남은 신자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일곱 가지 규범들에 대해서 굳건하고 확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남은 신자들은 절대 어떤 논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인류의 의견에 따르기 위해서 의견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이 규범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모두 ‘남은 신자들’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남은 신자들은 사람들에게 신심과 건전한 도덕,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남은 신자들은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목적 안에서 일치하고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남은 신자들은 기도와 희생의 요새가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남은 신자들의 사슬을 하나로 묶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같은 남은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 구석진 곳에 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바로 이곳 거룩한 사랑의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같은) 목적 아래 하나이며, 도덕성과 온전함 아래 하나이며 내 티 없는 성심 안에서 하나다. 그들은 전통의 힘이며, 건전한 도덕의 기초이고, 신심으로 돌아감이다. 그들은 미래의 희망이다.”

## 2015년 2월 16일 / 진리의 첫 번째 도덕 규범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우선, 남은 것이란 전체로부터 빠져나온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라. 그러므로, ‘남은 신자들’이란 많은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서 믿음에 헌신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면서 이제 ‘남은 신자들’과 관련된 진리의 첫 번째 규범을 살펴보자. 모든 영혼은 최후의 심판을 겪는다. 영혼에게는 저마다 내 아드님 앞에서 되는 심판의 날이 있다. 각 영혼은 마지막 숨을 쉴 때 그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여부에 따라 심판 받을 것이다. 이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은 구원으로 가는 출입구이자 길이다.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의 뜻의 활동이다.”

“각 영혼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상에서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자유의지는 올바른 선택을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 진리의 규범들은 이 목표를 위한 지침이다. 이 진리들 하나하나가 거룩한 사랑을 지지하고, 또한 거룩한 사랑의 지지를 받는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면 너희는 심판의 날에 내 아드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허를 찔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드님 앞에서 세 계 될 때 협상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심판의) 순간에 내 아드님께서 너희 마음의 덕을 똑똑히 들여다 보신다. 잘 준비 하여라!”

### + 성경 구절 독서 (1요한 4:21):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성경 구절 독서 (2요한 1:6):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15년 2월 17일 / 진리의 두 번째 도덕 규범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거룩한 ‘남은 신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남은 신자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두 번째 진리는 천국과 지옥은 실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자신의 최후 심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 하느님께서 당신과 영원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각 영혼을 창조하시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영혼에게 달렸다.”

“나는 너희가 잠시 영원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영원이란 영원하며, 결코 끝나지 않는다. 천국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옥도 마찬가지다.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낙원에서 당신과 함께 하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로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사탄은 너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말과 간교한 속임수로 너희를 자신의 지옥 영토의 영원한 괴로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자의 가장 큰 거짓말은 지옥이 없다는 것이다. 그자의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믿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수세기에 걸쳐 사후 세계의 존재를 증언하기 위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 이들이 많다. 만약 진리인 이 증언들이, 진리로서 받아들여졌다면 인류는 구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인류는 (이렇게 진리를 부정하는) 태도 때문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천국을 선택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영혼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는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사후 세계가 없거나 또는 환생을 통해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 등의 어떠한 혹설에도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것들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진리를 믿어라.”

## 2015년 2월 18일 / 진리의 세 번째 도덕 규범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거룩한 ‘남은 신자들’을 위한 진리의 세 번째 도덕 규범에 대해 말하

기 위해 왔다. 바로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모든 진리를 파괴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만약 너희가 이 일이 가능하게끔 하고자 한다면 적을 알아보려 하거나 인식하기를 거부하면 된다. 마약 중독자들이 바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현 미국 대통령(오바마)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관련해 이렇게 하고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영혼이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 또한 악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적을 알아보지 못하면 맞서 싸울 수 없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탄과 그의 앞잡이들이 조장하고 있는 악이 너희 온 주변에 존재한다. 악은 거짓 종교 안에 존재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참된 종교 안에도 존재한다. 사탄은 정부를 자극하며, 낙태와 동성애의 합법화를 부추긴다. 악은 유행, 과학기술의 불법 사용, 그리고 대중 매체에 반영되고 있다. 거짓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저 영적 투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자가 선의 옷을 입고 와도 알아볼 수 있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것이 분별이다. 적이 뿔이나 쇠스랑을 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는 보통 하느님의 선에 반대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겉보기에는 착한 사람들이 이곳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의 천상의 개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사탄은 좋은 지향들을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할 때 사탄이 개입해서 스캔들과 육체적 손상이나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들에서 거듭 드러난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이며, 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진리를 찾아헤매는 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해 자신의 거짓말을 사용한다. 사탄은 모든 진리의 적이다. 그러므로, 그자는 하느님의 계명들과 거룩한 사랑의 적이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사탄의 연기를 알아보아라.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는 불이 있다. 너희 마음을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방패로 보호하여라. 사탄의 목표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 믿음의 보호자이니 나에게로 오너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재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 2015년 2월 19일 / 진리의 네 번째 도덕 규범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남은 신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진리의 도덕 규범에 대해 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네 번째 진리는 ‘너희는 반드시 선과 악의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탄이 정말 존재한다는 진리의 깨달음은 너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사탄은 선과 악의 차이를 타협으로 흐려놓는다.”

“사탄은 죄를 ‘자유’라고, 악을 법적 권리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서 사탄은 사악한 속임수의 그물로 죄인을 사로잡는다. 선의 진리는 하느님의 모든 계명이 담겨 있는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정의된다. 악은 거룩한 사랑에서의 이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느님의 계명들인 거룩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마라. 선을 악으로 재정의하려 애쓰지 마라. 진리는 언제나 진리이며, 죄는 언제나 죄다. 너희는 죄는 존재하며 모든 영혼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거룩한 남은 신자들은 악에 정면으로 맞서고 악을 밝히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죄인에 대한 부적절한 동정심은 대부분 죄인을 달래고 죄를 격려하는 사탄의 도구다. 이것은 진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영혼은 흔히 거룩함에서 진보하면서 독선이라는 함정에 빠진다. 그는 심지어 악

마의 노력들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이 악마의 활동에 맞서 꽤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악의 또다른 계책이다.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겸손한 영혼이 선과 악을 가장 쉽게 분별한다. 이런 영혼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선과 악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한 남은 신자들의 일원으로서 너희는 다른 이들이 선과 악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어라. 독실한 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여라.”

\* 자기 인식이 이런 깨달음을 수반합니다.

## 2015년 2월 20일 / 진리의 다섯 번째 도덕 규범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의로움 즉, 신심 안에서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 점은 남은 신자들을 위한 다섯 번째 진리의 규범, ‘거룩한 사랑은 선을 정의하며 너희의 구원으로 인도한다.’로 이어진다.”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룩한 사랑은 십계명 전체의 구현이다. 아무도 거룩한 사랑에 의하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뒷문이나 협상은 없다. 거룩한 사랑은 개인의 거룩함과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거룩한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양심은 타협된 양심이다. 영혼이 그의 진리의 타협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죄 또한 더욱더 크다. 진리를 찾으려면 그저 거룩한 사랑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기만 하면 된다.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 악과 협력하는 것이다.”

“너희가 마음의 일부를 너희 자신을 위해 남겨둔다면 온 마음을 하느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명예, 권력, 권위, 신체적 외모, 세속적인 재산 등 너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거룩한 사랑의 장애물들이다. 모든 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라.”

“남은 신자들이 희망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에 변함없이 충실하고 모든 것을 거룩한 사랑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와 진리의 타협, 그리고 권한 남용을 피하는 방법이다. 거룩한 사랑은 진리이며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믿음(신앙)을 지키는 남은 신자들로 남아있지 못한다.”

+ 성경 구절 독서 (1요한 3:19-24):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5년 2월 21일 / 진리의 여섯 번째 도덕 규범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남은 신자들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왔다. 오늘 내가 말할 여섯 번째 도덕 규범은 ‘모든 죄 곧, 모든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은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다.”

“만약 영혼의 양심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형성되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죄는 우연히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의지를 통해서만 범하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이는 하나님과 이웃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 죄는 자기 잇속만 차리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채우고 싶은 어떤 무질서한 욕망 때문이며, 이 갈망이 의로움을 뛰어넘는 순간 죄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진리를 타협할 수도 있다. 이 타협 자체가 죄이며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 있다. 각 영혼은 선과 악에 관한 진리를 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도자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권한이 남용된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지위에 따르는 책임보다도 돈과 명예를 더 많이 염려한다. 이런 권위는 신뢰할 수 없으며 심지어 복종할 만한 가치도 없다.”

“남은 신자들은 반드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죄로 인해 잘못 인도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은 신자들아, 나는 무질서한 권위나 진리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바른 양심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진리의 규범을 지지하며 행동한다면 나의 지지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아는 데서 오는 힘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너희의 천상 어머니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장차 많은 [거룩한] 전통들이 중도에 무너지겠지만, 너희가 진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조심하여라. 조심하는 것은 신중함이지만\*, 두려움은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는 영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역주: 네 가지 주요한 덕행 가운데 하나인 예지(다른 세 개의 덕행은 용기, 정의, 절제)는 우리에게 사람과 사물을 올바르게, 곧 하느님의 뜻에 따라 대하도록 도와 도덕적 삶 내지 훌륭한 삶을 살게 해 준다. 네 가지 덕행은 사후덕(四樞德 Cardinal virtues)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덕행들은 다른 모든 도덕적 덕행과 도덕적 삶 전체를 묶고 있는 경첩과 같기 때문이다. 예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행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인지 선택하게 해 준다. 예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아래 있든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올바른 수단들을 선택하게 한다. 예지의 법칙은

신앙에 의해 밝혀진 이성이다. 이 덕행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① 성숙한 속고, ② 올바른 판단, ③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판단된 행위를 실행함. 선행 항목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전례 참여는 그 자체가 종교 덕행(이는 정의의 일부임)을 실천하는 것이다. (출처: 가톨릭 대사건)

## 2015년 2월 22일 / 진리의 일곱 번째 도덕 규범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거룩한 남은 신자들에게 대담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너희가 타협 아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희는 결코 영향력 있는 자의 설득에 넘어가 그 진실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남은 신자들을 위한 마지막 도덕 규범, ‘절대 인간과 그들의 의견을 하느님보다 더 존중하지 마라. 하느님께서서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점을 명심하여야.’이다.”

“의견은 대부분 세상에서 어떤 조치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견들은 법이 되어, 법을 지지하고 법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당한 짐을 지운다. 의견들은 정부나 단체 들의 특색을 바꾸며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한다. 교회와 국가 안으로 정치적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의견들이다.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십계명의 준수와 거룩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진리의 타협을 통해 죄로 향하게 만든다.”

“남은 신자들이란 오래된 교회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리스도적 도덕과 진리의 규범들을 영속시키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일컫는다.”

“도덕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죄를 통상적인 일처럼, 마치 용인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대중 매체에 의해 바뀌고 있다. 죄가 되는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감탄할 만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반면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오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은 신자들은 절대 이런 오류를 하느님의 법에 우선해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누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오류를 믿느냐

아니면 진리를 믿느냐 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론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 보신다. 각 영혼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법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기에 그의 심판이 달려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론을 서둘러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여라. 대신 거룩한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찾아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너희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에 대한 하느님의 의견이다. 타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쪽으로 의견을 정하여라. 이것은 단호한 노력을 요구하지만 은총이 너희를 지지할 것이다. 이것이 남은 신자들의 희망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티모 4:1-2, 7-8):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2티모 3:1-5):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영) 440-327-8006 [www.holylove.org](http://www.holylove.org)  
(한) 440-657-0113 [www.holylovekorean.com](http://www.holylovekorean.com)

Rev. 4.2021